

# 박병석 의장 “예정대로 오늘 원 구성”

### 상임위장 선출시한 민주·통합당에 합의 당부 법사위 놓고 평행선 여전 민주 “잘못된 관행 고쳐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위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선출시한인 12일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를 방침을 11일 재확인하면서 원 구성 관련 새로운 분수령을 맞고 있다. 12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21대 국회가 ‘일 할 준비’를 마칠 수 있지만 민주당의 독자적인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으로 이어진다면 국회 개헌 초반 여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양보안을 제출해 달라.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평행선 대치를 이어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책임있는 집권 여당이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명령이 이번 총선의 결과”라며 “지금까지 잘못된 국회 관행으로 국회가 정상적 운영을 하지 못한 사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정수 합의에도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어서 협

상 결과를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합의 과정이 시간갈기 용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통합당을 정면 겨냥했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다 되어갑니다. 또 다시 원 구성 법정시한을 넘겼다. 더 이상 국회를 불법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통합당은 12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십시오. 법을 지키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라”고 구했다.

자는 것은 좋은데,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며 “(각 당이) 어느 상임위원장을 맡을지 알아야 당내 경선에서 위원장을 배정하고, 거기에 따라 배정표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원은 4년간 국회 운영의 틀을 정하는 것이니 합의에 의해 하라는 것이 국회법 취지”라며 “외국 같은 경우 협치의 틀을 정하는 데 6개월도 더 걸리는 경우가 많다. 늦은 게 빠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국민은 21대 국회가 과거와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별다른 게 없다는 실망감으로 변해가는 단계”라며 “국

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양보안을 제출해 달라.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는 것은 좋은데,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며 “(각 당이) 어느 상임위원장을 맡을지 알아야 당내 경선에서 위원장을 배정하고, 거기에 따라 배정표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원은 4년간 국회 운영의 틀을 정하는 것이니 합의에 의해 하라는 것이 국회법 취지”라며 “외국 같은 경우 협치의 틀을 정하는 데 6개월도 더 걸리는 경우가 많다. 늦은 게 빠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상임위 회의 불출석 의원 공개”

### 與 “일하는 국회법” 초안...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출석 의원을 공개하는 등 페널티 부과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일하는국회추진단이 이날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회의 출석 상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상임위원장은 월 1회 국회의장에게 소속 위원들의 출결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불성실 상임위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3단계에 걸쳐 주의, 경고, 해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위원장·간사 교체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장은 신속하고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안전 설정을 원내대표 간 합의에 맡기던 관행을 탈피, 컨베이어벨트식으로

선임선출 법안처리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법안 등 사회·경제적으로 긴급한 현안이 있는 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로 ‘착한 새치기’가 가능하게 했다.

상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의장이 다음 해 의사 일정을 발표하게 하고, 휴회 기간 이외 나머지 기간에는 자동으로 회기가 열리게 했다.

본회의는 월 2회, 상임위는 월 4회 이상으로 못 박고, 법안심사소위 역시 대부분 상임위에서 복수로 두도록 강행 규정화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도 폐지한다.

민주당은 초안을 바탕으로 토론 내용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정리한 후 의원총회를 거쳐 일하는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 한 발 물러선 양향자

### 5·18특별법 개정 지연 우려 ‘역사왜곡법’ 철회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왜곡처벌법’이 민주당 당론 법안인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과 중복돼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는 수도 있다는 지적과 관련, 11일 “당의 뜻에 따르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양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를 통해 “역사왜곡처벌법은 다양한 역사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법이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위해서는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은 이달 역사적 사실을 왜곡·편향하거나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5·18을 비롯한 일본 강점기, 세월호 참사까지 한국 근현대사를 왜곡·편향하거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을 모욕하는 경우 최대 징역 7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5·18 관련 법안과 일부 중복되거나 5·18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 의원은 또 같은당 윤우덕 의원(경기 파주)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절정 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도 철회할 방침이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거나 지역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 광주·전남지역에는 불리한 법안이다.

이처럼 양 의원이 뒤늦게 문제로 지적된 법안들을 철회할 뜻을 내비쳤지만 성급한 법안 발의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 여의도 브리핑

### 서삼석, 농수축산인 조세감면 5년 연장 법안 발의

올해 일몰 예정인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감면제도를 2025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남·무안·신안) 의원은 11일 농수축산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축사용 지·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영농 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를 100% 감면하거나 농협, 수협 등 조합 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저율 과세를 부과한다. 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등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자경농민의



농지, 임야, 농기계류와 자경 어민의 양식업권, 어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들은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분야 세제 지원규정의 기간 연장은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인 농협중앙회장 선출제도를 전체 조합장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 이형석, 16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입법공청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 국회의원은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이형석 의원의 ‘1호 법안’이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발의 법안 중 ‘당론 1호 추진 법안’인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 법안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전남대학교 동아시아법센터 책임연구원 김남진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운 교수, 법무법인 이우스 김정호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날 참석자들은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법 조항에 추가해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처벌 규정 신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는 문제 해결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형석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법률적 평가가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끊임없이 왜곡·편향된 일삼아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 세력들은 이를 통해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더 이상 5·18에 대한 왜곡·편향해가 반복되지 못하도록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 전남 의원 10인 “냉해 피해 농가 지원책 마련해야” 성명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김원아·김희재·서동용·서삼석·소병철·신정훈·윤재갑·이개호·주철현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11일 “이상저온으로 냉해 피해입은 농가에 대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을 비롯 전국 9개 지역에서는 올해 4월 초 영하권으로 떨어지던 이상기후로 총 7,000ha가 넘는 농작물이 냉해로 입어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다.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과 실질적인 보상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과수 4종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을 기존 80%에서 50%로 낮추고, 자연재해 보험금을 받은 농가의 경우 다음 재해보험금 수령 시 최대 20%까지 감액시키는 방침을 세워 농민들이 이종고를 겪고 있다.

이에 이 국회의원들은 냉해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현실화와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12.

#### 여수시장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구분	종류	면적 (㎡)	기종	연장 (m)	기종	종점	시용 형태	주요 결정일	최초 결정일	비고
가1	소로	2	823	8	국지 도로	대1-5 소1-B 신1동 10-34대 신1동 75-14대	중1-65 소1-B 신1동 75-14대	일반 도로	-	신1동 75-14대
변경	소로	2	823	8	국지 도로	대1-5 소1-B 신1동 180도	중1-65 소1-B 신1동 75-14대	일반 도로	-	노선 축소
변경	중로	2	A	15	국지 도로	대1-5 소1-B 신1동 10-34대 신1동 180도	중1-65 소1-B 신1동 180도	일반 도로	-	폭원 변경
변경	소로	1	B	11	국지 도로	중2-A 신1동 180도	중2-623 신1동 180도	일반 도로	-	폭원 변경

##### 나.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명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기종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78	기전 공원	어린이공원	신1동 7번지 일원	1,503.1 (승) 283.3	1,786.4	여고-31호 97.07.01			

##### 다.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명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623	소로	노선축소 -L: 483m → 104m 간 302m	신1동 공동주택 사업으로 인하여 노선 축소
소로 2-623	중로	폭원변경 -B: 8m → 15m (승) 7m	신1동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조각기)으로서 차원의 일괄한 동행과 안전관행 환경 조성은 위하여 도로 폭원 확대
소로 2-623	소로	폭원변경 -B: 8m → 11m (승) 3m	신1동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조각기)으로서 차원의 일괄한 동행과 안전관행 환경 조성은 위하여 도로 폭원 확대

#####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계획 생략

##### 3.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도면: 계획 생략

##### 4. 열람장소: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 5. 공고기간: 2020. 6. 12 ~ 2020. 6. 26(14일간)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도시계획과 ☎ 061-659-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